



삼국유사인문학여행(遊行)

고구려 불교와 백제 불교의 지형도

구법승 · 전법승 있어 불교 발달

1. 고구려 불교의 지형

고구려인들은 소박한 업실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점차 무상 무아 고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사유체계와 인식방법으로 체화해 인간 이해와 세계 인식의 지평을 확산시켜 나갔다. 고구려 불교는 공인 전후부터 왕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발전했다. 수도였던 환인(桓仁)의 오녀산성과 집안(集安)의 국내성의 불교 지형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수도인 집안에는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필두로 적지 않은 절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국양왕은 자신의 재위 말년(391)에 “불법을 높이 받들어 믿고 복을 구하라[崇信佛法求福]”고 교지를 내렸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인들은 불교를 복을 주는 가르침으로 이해했고 절을 ‘복을 닦고 죄를 멸하는 곳[修福滅罪之處]’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또 광개토태왕이 명을 내려 평양에 아홉 개의 절을 세우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 수도인 환도(丸都, 國內城)에는 더 많은 절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문자명왕은 379년 동안 재위했던 장수왕의 평양 천도에 이어 왕위에 올라 금강사를 세웠다고 한다.

고구려, 구복(求福)으로 불교 이해 삼론학·열반학 중심교학 삼아

일본 정법사(頂法寺) 연기에 의하면 일본의 성덕태자가 받들어 맞이하도록 한 광명사 관음상에 관한 기록에는 덕윤(德胤) 선사가 머물러 있었던 고구려의 절이름인 광명사의 유래를 볼 수 있다. 이 광명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일본) 국으로 불상을 모시고 갔다는 점에서 볼 때 수도 평양에 있었던 절로 추정된다. 보장왕 9년(650) 여름 6월에 보덕(普德)이 “나라에서 도교만 받들고 불교를 믿지 않으므로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라고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보덕은 남쪽 완산의 고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이름을 알 수 있는 고구려 사찰은 초문사 이불란사 금강사 광명사 반룡사 등이다. 대표적인 학술들은 요동 출신으로서 열반에서 활동한 승랑과 열반학의 대가였던 보덕, 중국에서 지론과 계율을 전해온 의연(義淵)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 불교는 종래 수도 집안을 무대로 뻗어갔던 삼론학 계통과 집안과 평양 외곽의 열반학 계통 및 평양 중심의 지론학 계통으로 분기하고 있었다.

중손상자인 길경의 여러 저술에 인용된

승랑의 삼론체계는 정관무득(正觀無得) 사상으로 요약된다. 그는 중국불학사에서 불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중국불학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승랑은 유소득(有自性) 유무의 성실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해 소승 교리임을 밝혀내고 무소득(無自性) 유무의 삼론학이 지닌 본의를 발휘해 대승 교리를 새롭게 천명했다. 보덕 이전에 활동했던 의연(義淵)이 지론종 남도와 대표주자인 혜광(慧光)의 제자였던 법상(法上)에게 불법(佛法)의 시발(始末)을 묻는 (576)해 오면서 지론(地論) 사상을 일부뿐 아니라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에 지론 사상이 널리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덕은 열반교의 평등사상과 방등교의 불이사상을 부동심으로 표현해 당시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보덕이 <열반경>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도교에 대한 공격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성의 뿌리를 끊어버린 일체중생조차도 언젠가 성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드넓은 이해를 보여주려는 데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것은 열반교의 평등사상이 방등교의 불이사상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고구려의 삼론학은 승랑과 승전 이래 법랑을 이은 길경의 문하에서 공부했던 혜관(慧觀, 慧觀)과 축(蜀) 땅에 들어가 감성했던 인(印)법사 및 혜지(慧持; 575~642)에게 삼론을 가르친 실(實)법사 등을 중심으로 매우 융성했다. 반면 고구려의 천태학은 진(陳, 557~589)나라와 수(隋, 581~618)나라의 교제기에 천태지자(538~597)에게서 천태 선법(禪法)을 닦은(596) 파야(波若; 562~613)가 돌아오지 못해 제대로 연찬되지 못했다. 때문에 고구려의 중심 교학은 중기의 삼론학과 후기의 열반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백제불교의 지형

겸익은 한국불교사에서 인도로 유학을 떠나 백제로 돌아온 최초의 구법승임에 틀림없다. 그는 배달다 삼장 등과 함께 아비담장과 오부 율문을 가져와 함께 번역하고 강론했다. 그의 아비담장에 대한 이해와 오부 율문에 대한 인식은 자세할 수 없다.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도 온전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시대정신과 역사적식을 가지고 인도로 유학을 떠났고 공부해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살림살이와 사교방식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그는 오부 율문을 가져와 번역하고 강론했으로써 중국보다 약 1



충남 부여군 대조사. 한국사상 최초로 인도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온 겸익(謙益)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세기 앞서 백제에서 오부 율문 모두를 연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율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를 따르는 문생들에 의해 형성된 학맥은 공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백제의 계율학과 삼론학 및

한국 최초의 삼장법사 겸익 백제, 인도·중국 불교 융합

성실학과 법화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겸익은 인도의 아비담장을 수용하면서도 백제의 대승교학적 토대와 충돌하지 않고 상호 투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그의 율학사상은 설일체유부의 <십송율>을 수용하면서도 법장부의 <사분율> 등 율문들과도 융합하는 역동성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불교의 중도사상은 존재와 비존재 및 연속과 불연속 등의 이항에 대한 치우침 없는 균형각각으로 나타난다. 유수한 번역가이자 사상가였던 겸익 역시 그러한 역동적 지혜 위에서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겸익의 살림살이와 사교방식을 통해 그를 한국사상사 최초의 삼장법사이자 백제 율학의 비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덕왕대(554~598)에 현광은 중국 진(陳)나라의 남악 형산(衡山)에 머무는(567~577) 혜사(慧思; 515~577)를 찾아가 문하에 들었다. 평소 혜사는 용수의 <대지도론>에 의거해 <반야경>과 <법화경>의 일치를 주장해 왔었다. 남악에 들어온 뒤 혜사는 안락행(安樂行) 법문으로 마지막 회

향을 하고 있었다. 그의 문하에서 안락행의(安樂行儀)를 닦아 법화삼매를 증득한 현광은 스승에게 인가를 청해 <법화경>의 안락행문을 은밀히 전수받았다. ‘안락행문’을 전수받은 이후 그는 자신의 독자적 관점을 입론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현광은 북제(北齊) 혜문(慧文)의 제자였던 남악 혜사의 문하에서 실천적 행법을 심화시켜 법화학의 체계를 정립했고, 함께 수학한 천태지의(537~598)는 이론적 구조를 논구해 천태학의 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혜사는 현광에게 “그대가 증득한 것이 진실해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잘 보호해 법으로 해금 증장하게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 방편을 펴라”는 부촉을 했다.

또 그가 중국에 있을 때는 혜민(慧旻)이 그 법을 받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17년 동안 머물던 현광은 중국을 떠나 고향인 용주의 용산으로 돌아와 법찰(사원)을 짓고 교화에 힘썼다. 당시 용산의 현광 아래에서 법화(삼매)당에 올라 수기를 받은 이가 한 명, 화광(火光) 삼매에 든 이가 한 명, 수광(水光) 삼매에 든 이가 두 명이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기법을 받은 한 명은 법화삼매의 증득자 또는 안락행법을 받은 제자로서 현광의 법을 계승해 법을 실천 이로 짐작된다. 여기서 화광삼매에 든 한 명은 법화삼매 유상행의 ‘보문품’ 독송을 통한 수행에서 자비(慈悲)에 의해 번뇌(煩惱)를 멸하고 안락(安樂)을 얻게 된 사람으로 이해된다. 또 수광삼매에 든 두 명은 관세음보살의 ‘칭명’으로 삼난(三難: 果報水, 惡業水, 煩惱水)을 면하면서 보살의 본願(本願)으로 별관(別觀)과 원관(圓觀)을 닦을 때 자비가 감응한 이들로 인식된다. 이들은 각기 현광의 법화삼매 수행법

을 백제에 전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불교의 구법과 전법

고구려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인 뒤 앞의 절과 삶의 질을 크게 제고시켰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를 향해 구법하고 다시 백제와 신라 및 왜국에 전법을 했다. 고구려 불교는 승랑 인법사 실법사 관록 관해로 대표되는 삼론학과 보덕 등으로 대표되는 열반학 그리고 파야 등으로 대표되는 천태학이 주축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중국불교 정착기라 할 수 있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학통을 온전히 익히고 육화시켜 이웃 왜국(일본)에까지 전해주었다. 이들 고구려 전법승들에 의해 일본 고대 불교는 그 사상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혜랑(惠亮)은 제24대 양원왕(551)경 신라로 가서 최초의 국통이 돼 신라불교의 전래 초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석과야(釋波耶)는 중국 천태산 지자(智者) 대사에게 수학해 천태교관을 받았다. 실(實)법사는 수나라의 촉망에 들어가 삼론을 강의했고, 인(印)법사 역시 수나라에서 삼론을 크게 강의했다. 지황(智晃)은 설일체유부 사상에 뛰어났으며, 현유(玄遊)는

일본 고대불교 사상적 기반은 고구려 승려의 전법행 덕분

인도 구법의 역정을 떠난 중국인 승철(僧徹)을 따라가 사자국(師子國, 스리랑카)의 승려가 됐다.

고구려 사문들은 일본으로도 전교를 떠났다. 혜변(惠便)은 일본의 백제계 대신이었던 소야마자(蘇我馬子)와의 인연으로 일본에 절을 짓고 전교하면서 선신(善信)니, 선장(善藏)니, 혜선(惠善)니의 세 여승을 배출했다. 혜자(惠慈)는 일본 성덕(聖德)태자의 스승이 돼 불법을 가르치고 정교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영양왕 때에는 승통(僧隆)과 운총(雲聰), 담정(曇暎)과 법정(法定) 등이 전교를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특히 담정은 불학과 오경(五經) 그리고 종이와 먹 및 깃털 등을 만드는 기술과 그림그리기를 가르쳐 주어 일본 고대 문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고구려 불교 사상은 시대에 따라 변주됐으나 불교가 완전히 정착했던 5세기 이후에는 삼론학과 열반학과 천태학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불교의 대표적인 승려들은 인도로 구법했던 겸익을 비롯해서 담욱, 혜인, 발경, 혜현, 현광, 관록 등이다. 특히 겸익(謙益)은 제26대 성왕 4년(526)에는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떠난 뒤 오부율문과 아비담장의 원전을 가지고 귀국하면서 인도승 배달다(倍達多) 삼장과 함께 왔다. 그러자 성왕은 나라 안의 학덕이 높은 고승 28명으로 해금 격의를 도와 율부 72권과 소승은 장인 비담의 번역을 완성하도록 했다. 이에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이 율부에 대한 주석을 달아 율소 36권을 저술했다. 성왕은 번역된 비담과 신율의 서문을 지었고 새로 번역된 불전을 태요전(臺耀殿)에 받들어 간직했다. 성왕 19년(541)에는 남조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열반경> 등 경전의 주석서(經義)와 공장(工匠) 및 화사(畫師) 등을 청했다. 같은 왕 23년(545)에는 장육(丈六)불상을 조성해 천하의 모든 중생이 다같이 해탈하기를 기원했다.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한 해는 <원흥사가람연기(元興寺伽藍緣起)>와 <상궁법왕제설(上宮法王帝說)> 기록에 근거한 백제 성왕 16년(538)인 흥명(興明) 무오년과 성왕 30년인 흥명 13년(552) 두 가지 주장으로 짐작된다. 최근의 일본학계의 앞의 설을 정설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여러 전거를 통해 정합성을 따져보면 제17대 아신왕 때 일본에 불경이 전해지면서 문자도 함께 사용하게 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왕 32년(554)에 담해(曇慧) 등 9명의 승려를 왜국에 보내어 도심(道深) 등 7명의 승려와 교대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왕 32년 이전에 이미 백제의 승려들이 왜국에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덕왕 24년(577)에는 경과 룬, 율사, 선사, 비구니, 주금사(呪禁師), 불공(佛工), 사장(寺匠) 등을 일본에 보냈다. 31년(584)에는 왜인이 불상과 미륵상 두 구를 가져왔다. 위덕왕 35년(588)에는 불사리와 승려, 사공(寺工, 太良末太文賣古子), 와장(瓦匠), 화공(畫工, 白如) 등을 왜국에 보냈다. 왜국에서는 대신인 소야마자(蘇我馬子)가 백제승을 청해 수계의 법을 물었으며, 다시 선신(善信) 등이 불법을 배우러 백제로 왔다. 이들은 3년간 머물면서 계율을 공부하고 비구니가 돼 왜국으로 돌아갔다. 또 혜총(惠總)과 영근(令斤)과 혜사(惠寔) 등 사문으로 해금 왜국에 불사리를 전하게 했고, 영조(聆照), 영위(令威), 혜중(惠衆), 혜숙(惠宿), 도염(道嚴), 영계(令關) 등 승려를 보냈다. 위덕왕 42년(595)에 왜국으로 건너간 혜총은 고구려의 혜자(惠慈)와 함께 성덕태자(聖德太子)를 일깨워 일본 삼보의 대등보가 되게 했다.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토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7가지 본이 있으며, 37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강 | 최고급양장제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질2인쇄

현토삼 02)2004-8215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점(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 육건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